2024.12.10.

국회예산정책처 I 나보포커스 I 제80호

nabo Focus

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위험 요인

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강은정 분석관

비상계엄 선포 (2024.12.3.)

▪ **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나 다음날 새벽 비상계엄이 해제**

- **(계엄 선포)**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
  - 1979년 10월 27일 이후 45년 만에 계엄령 선포
- **(계엄 해제)**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경 출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함. 정부가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'비상계엄 해제안'을 의결하여 비상계엄을 해제함.
- **(탄핵안 표결)**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투표불성립

최근 금융·외환시장 동향

▪ **비상계엄으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로 금융·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**

- 역외차액결제선물환(NDF) 원/달러 환율[1]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1,440원대까지 상승하였으나 해제 이후 1,410원대 수준으로 하락하다가 12/9일 1,435원대 수준으로 상승
  - 원/달러 NDF 환율(원): (3일 오후 8시) 1,401.6 → 1,442.4 → (4일 오후 8시) 1,413.7
- 12/4일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지수 펀드(iShares MSCI South Korea ETF)[2]는 전일 종가대비 7.0% 하락했으나 점차 안정화되면서 전일대비 1.6% 하락한 수준에서 장마감
  - iShare MSCI South Korea ETF: (3일 오후 6시) 56.71 → 52.73 → (4일 오후 6시) 55.8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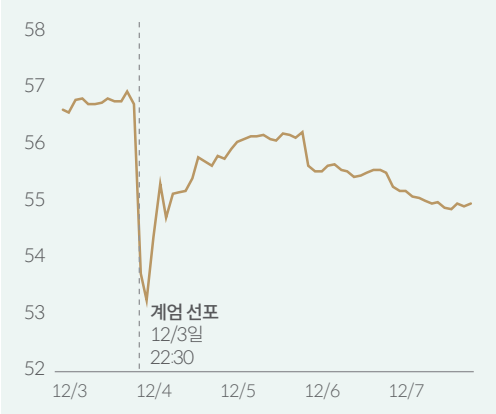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원/달러(NDF) 환율 추이

(단위: 원/달러)

자료: Bloomberg(검색일: 2024.12.9. 오후 4시)

[그림 2] 미 증시 상장 코리아 ETF 추이

(단위: USD/주)



자료: Bloomberg(검색일: 2024.12.9.)

1) 역외차액결제선물환(Non-Deliverable Forward, NDF) 환율은 타국(역외)에서 결정되는 원/달러 환율

2) 아이셰어즈 MSCI 사우스 코리아 ETF(iShares MSCI South Korea Exchange-Trade Fund)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대표적인 국내 증시 관련 상장지수펀드(ETF)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-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(CDS) 프리미엄[3]은 한때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12/3일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
  - CDS 프리미엄(bp): (3일 오후 8시) 33.3 → 36.5 → (4일 오후 1시) 35.5
-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12/4일 5bp(10년물) 상승하는 등 단기적 변동성 발생
  - 국고채(3년, %): (12/3일) 2.585 → (4일) 2.626 → (5일) 2.603 → (6일) 2.620
  - 국고채(10년, %): (12/3일) 2.713 → (4일) 2.765 → (5일) 2.738 → (6일) 2.74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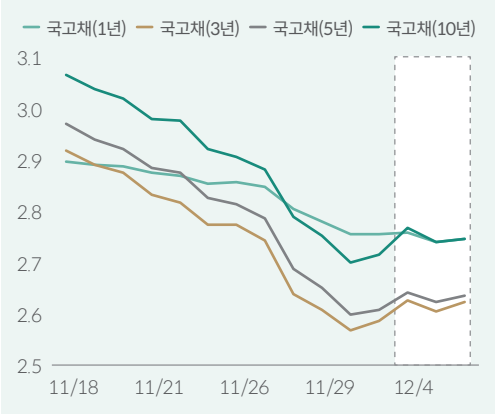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CDS 프리미엄 추이

(단위: bp)

주: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
자료: Bloomberg(검색일: 2024.12.7.)

[그림 4] 국고채 금리 추이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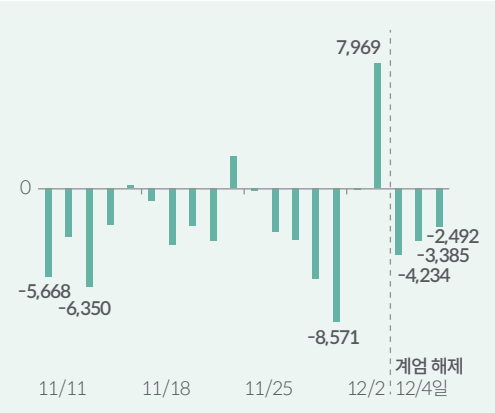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(검색일: 2024.12.6.)

- 국내 주가지수(코스피)는 12/9일 2,361로 12/3일 대비 5.6% 하락
  - 코스피지수: (3일) 2,500 → (4일) 2,464 → (5일) 2,442 → (6일) 2,428 → (9일) 2,361
  - 코스닥지수: (3일) 690.8 → (4일) 677.2 → (5일) 670.9 → (6일) 661.3 → (9일) 627.0
- 외국인 투자자는 12월 4~6일간 주식시장에서 1조 111억원을 순매도하였으며, 채권시장에서는 647억원을 순매수하였음.
  -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(억원): (3일) 7,969 → (4일) -4,234 → (5일) -3,385 → (6일) -2,492
  - 외국인 채권 순매수 규모(억원): (3일) 3,380 → (4일) 4,977 → (5일) -3,311 → (6일) -1,019

[그림 5] 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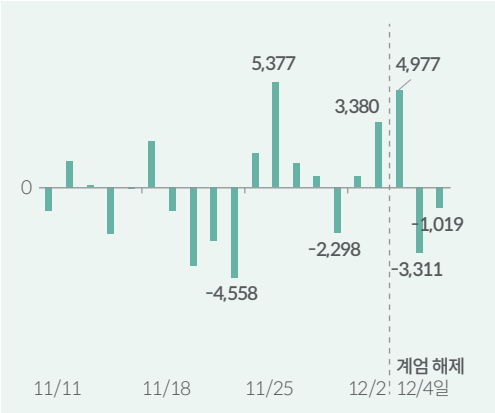
(단위: 억 원)



주: KOSPI와 KOSDAQ 합계 기준
자료: FnGuide(검색일: 2024.12.6.)

[그림 6] 외국인 채권 순매수 추이

(단위: 억 원)



자료: FnGuide(검색일: 2024.12.6.)

3) CDS(Credit Default Swap)는 채권발행주체의 부도위험에 대한 보장을 거래하는 신용파생상품으로 채권발행자의 신인도를 나타냄.

주요 외신의 보도 내용

▪ **주요 외신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향후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**

- BBC는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의 경제 및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보도
- 블룸버그(Bloomberg)는 이번 사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(한국 기업의 주가가 여타 선진국 대비 저평가)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[4)]
- 뉴욕타임스(NYT), 워싱턴포스트(WP), 월스트리트저널(WSJ), 파이낸셜타임스(FT) 등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

시장안정화조치 및 대외건전성

▪ **정책당국은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응**

- (시장안정조치) 12/4일 정책당국은 긴급 거시경제·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·외환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기로 결정
  - 금융당국은 증권시장안정펀드(10조원), 채권시장안정펀드(40조원), 회사채·CP매입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여 주식·채권·자금시장 안정을 도모
  - 한국은행은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(RP) 매입을 실시[5)]하고, 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을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[6)]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

[표 1] **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사례**

위기 사례	금융시장 안정화 조치
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	•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안정조치를 시행 • 기준금리 대폭 인하(5회, 3.25%p), RP 매입 등 공개시장조작(15.2조원), 총액대출한도 증액(1.7조원), 지급준비금 이자지급(0.5조원) 및 채권시장 안정펀드(2.1조원)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 공급 •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(1천억 달러 한도, 3년), 외평기금 10.6조원 확충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시행
2016년 美 대선 결과	•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 • 국고채 및 통안채 발행규모 축소, 차환리스크 완화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
2020년 코로나19 위기	•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 • 민생·금융안정패키지(175조원) 등 금융지원조치 시행, 기준금리 인하(0.75%p), 특별대출제도 등 유동성공급 확대
2022년 단기금융시장 불안	• 증권시장안정펀드(10조원), 채권시장안정펀드(20조원), 회사채·CP매입 프로그램 가동, 환매조건부증권(RP) 매입 등 유동성 지원 조치를 시행
2024년 12월 4일	• 증권시장안정펀드(10조원), 채권시장안정펀드(40조원), 회사채·CP매입 프로그램 가동, 환매조건부증권(RP) 매입 등 단기유동성 공급 확대

자료: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, 한국은행

4) "Yoon's martial law gamble imperils Korean market reform drive." Bloomberg (Dec 4, 2024)

5) 12/4일 한국은행은 10조 8,100억원 규모의 RP 매입을 실시

6) (RP매매 대상증권)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, 중소기업금융채권, 수출입금융채권,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, 농업금융채권, 수산금융채권, 「은행법」에 따른 금융채 추가
(대상기관) 은행의 경우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전체로 확대하고, 비은행의 경우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전체, 한국증권금융까지 대상기관을 확대

- (대외건전성) 대외건전성 지표 중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은 4,200억 달러(2024년 3분기말 기준) 규모이며,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7.8% 수준(표2 참조)
  - 한국은행은 계엄 사태가 비교적 빠르게 해제되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(12/5)
  - 국제 신용평가사 S&P도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(12/4)

[표 1]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지표[1)]

	외환위기 (1996년말)	글로벌 금융위기 (2008년말)	코로나19 위기 ('20.1분기)	최근 ('24.3분기)
외환보유액(억 달러)	332	2,012	4,002	4,200
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%)	48.5	46.6	31.0	22.6
단기외채/외환보유액 비율(%)	211.4	72.4	38.0	37.8
순대외채권(억 달러)[2)]	-415	277	4,643	3,780
국가신용등급(S&P)	AA-	A	AA	AA

주: 1) 기말 2) 순대외채권(대외채권-대외채무)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, S&P

향후 위험요인

▪ **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 지연 및 수출 증가 폭 축소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약화되고 있어 향후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**

-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  - 불안감 확산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확대될 경우 원화가치 하락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  -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, 무디스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(12/6)
  -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로의 여행수요가 위축되거나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악화될 우려도 있음.

▪ **향후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**

- 금융 및 외환시장의 위험이 시스템 리스크 및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위험 발생 시 시장 안정화 조치가 신속히 단행될 필요
-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주요국 정책당국, 금융기관, 국제신용평가사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양호한 수준의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등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
- 이와 더불어 불확실성 고조가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지 않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발간등록번호 | 31-9700484-001731-14 ISSN | 2672-0280
발행처 |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인 |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담당 |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문의 | 02-6788-4680
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